



클래식 선율로 새해 '희망 충전'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신년음악회 'New wave'를 15일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펼친다. 공연 후 인사하는 광주시향 단원들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모습>

계엄 시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여파로 어수선한 요즘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우울함에 젖어 있다.

잠시 클래식 음악으로 마음을 다독이고 기분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

경쾌한 오페라와 서정적인 가곡, 낭만 가득한 왈츠 등을 만나는 신년 기획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선보이는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가 그것.

이번 공연은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선사하는 엘가부터 바흐의 화려함, 우아함이 깃든 헨델 등의 곡으로 채워진다. 현대적인 서정성과 깊이를 표현한 현대 작곡가 에릭 휘태커 작품과 한국 가곡도 준비돼 있다.

막은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Op.39 1번 D장조'로 울린다. 영국에서는 1번 혹은 중간부 선율을 두고 '희망과 영광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사랑받는 작품이다.

이어 헨델 '수상음악 모음곡 2번 중 알라 혼파이프'가 울려 퍼진다. 두 개 주제로 구성된 이 곡은 트럼펫과 팀파니, 호른의 연주 후 관악기가 주제를 주고받는 구성이다.

1주제는 군대 행진을 연상시키듯 힘 있고 2주제는 밝고 우아한 변주가 귀를 사로잡는다. 하프시코드와 저음부 멜로디를 중심으로 일관되고 리듬감 있는 악곡은 경쾌하면서도 조화롭다.

1980년 미국에서 태어나 독특한 작품으로 합창음악 애호가에게 꾸준히 회자되는 에릭 휘태커 '10월'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어지는 '박쥐 서곡'은 오스트리아 경음악·오페라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곡이다.



바리톤 김기훈 소프라노 박소영

광주시향, 희망·승리 메시지 선사 신년음악회 내일 전남대 민주마루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부터 헨델 '수상음악 모음곡'까지 다채

소프라노 박소영은 아르디티 '입맞춤', 임금수 '강건너 불이 오듯'으로 낭만을 선사한다. 서울대 성악과와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 석사와 최고 연주자과정을 전액 장학생으로 수석 졸업한 그는 2024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2013년 리릭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밤의 여왕 역으로 데뷔했다. 2부는 경쾌한 오페라곡의 세계로 시작한다. 바리톤 김기훈이 들려주는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는 19세기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영화로도 알려져 있다.

바리톤 명곡으로 손꼽히는 레온카발로 작 '팔리아치' 중 '신사 숙녀 여러분'도 레퍼토리에 있다. 막이 오르기 전 광대 토니오가 나타나 청중들에게 전하던 서곡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박소영과 김기훈 성악가가 함께 부르는 레하르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도 즐거움을 선사한다. 끝으로 로시니 '도둑까지 서곡',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트리치 트라차 폴카 Op.214', '왈츠 왈츠 Op.437' 등이 울려 퍼진다.

바리톤 김기훈은 영국 공영방송 BBC가 주최한 'BBC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한국 성악가 최초로 우승한 바 있으며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남자성악부문(2위), 대한민국 오페라 어워드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지휘를 맡은 김영언은 서울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했다. 현재 광주시향 상임부지휘자로 재직 중이며 전남대, 전북대, 건국대, 성신여대 등 오케스트라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올해 첫 음악회인 'New wave'는 경쾌한 오페라와 서정적 가곡, 낭만적 왈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적 언어를 통해 공감과 감동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광주시향은 고전음악의 유산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해석으로 음악이 가진 시대·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새 물결'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R석 3만 원, A석 1만 원(초등학생 이상 관람),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의 교감

해남 출신 김여옥 시인 '나는 언제나 나를 향해 서 있었다' 펴내

해남 출신 김여옥 시인이 '나는 언제나 나를 향해 서 있었다' (들꽃)를 펴냈다.

시인은 지난 91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한 이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다. '自由文學' 편집장과 '月刊文學' 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출판사 관련 일을 해왔으며, 현재 고향 해남으로 귀촌한 상태다.

"무위자연하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교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시인은 '귀촌 이후 집 정리를 하느라 하는 일 없이 바쁘다'고 전했다.

이번 시집을 펴내게 된 계기에 대해 "코로나 때부터 집중적으로 명상을 했다.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고 이후로 명상에 집중했다"며 "이번 시집은 그것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고 철학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겼다"며 "시집 뒷부분에 아프리카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작품들은 대체로 짧다. 짧은 만큼 시상이 간결하고 메시지 또한 명징하다. 이런 저런 군더더기를 걷어낸 터라 독자들은 배면에 드리워진 화자의 음성을 차분히 음미할 수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별레를 잡기 위함이 아니



김여옥 시인

다// 동터 오는 새벽 다섯 시/ 잠 못 드는 영혼을/ 맑은 부리로 적셔 주기 위해서다// 깊은 숨들이쉬게 하는 것이다"

'새의 호흡법'은 이번 시집의 특징을 아우르는 대표작이다.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짧은 시 속에 담고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별레를 잡는다"는 서양 속담을 재해석했다. "잠 못 드는 영혼을 맑은 부리로 적셔주기 위함"이라는 표현은 오랜 사유 속에서 발아된 문장이다.

한편 한국문학사연구가 이승철 시인은 "모든 것을 가까이 받아들인 고통 속에서 버려진 김여옥 시집은 마침내 우리에게 인생의 비밀을 터득케 하며 불멸의 아프리카를 선사한다"며 "그만의 독특한 시적 아우라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평한다.

한편 김 시인은 '제자리 되찾기', '너에게 사로잡히다' 등 시집을 펴냈으며 마케도니아 '제35자 스트루가 국제 시축제' 등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보라 '너의 유토피아' 필립 K. 디 상 후보

'세계 3대 SF 문학상' 한국 최초...4월 18일 수상작 발표

정보라(49) 작가의 소설집 '너의 유토피아'가 한국 소설 최초로 세계 3대 SF(과학소설)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미국 필립 K. 디 상 후보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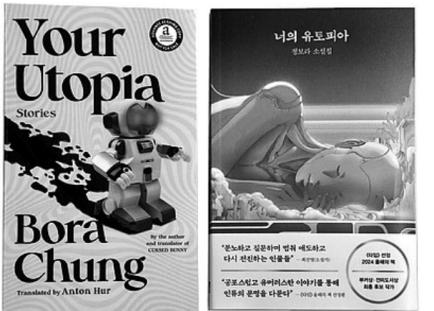
출판사 인플루엔셜의 문학 브랜드 래빗홀은 "너의 유토피아" 영어 번역본이 필립 K. 디 상 후보 여섯 편 가운데 하나로 올랐다"며 "수상작은 올해 4월 18일 발표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에 출판된 SF에 주어지는 필립 K. 디 상은 휴고상, 네블라상과 함께 세계 3대 SF 문학상으로 꼽힌다.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 이윤하가 '나인 폭스 갬빗'으로 휴고상과 네블라상 최종 후보에 수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으나 한국인 소설가가 한국어로 쓴 작품이 3대 SF상 후보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너의 유토피아'는 2021년 출간된 소설집 '그녀를 만나라'의 개정판으로 총 여덟 편의 소설을 담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 '유어 유토피아'(Your Utopia)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다.

표제작 '너의 유토피아'는 전염병으로 인류가 떠난 황량한 행성에서 고장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를 태우고 배회하는 스마트 자동차의 이야기다.



정보라는 1998년 연세문화상에 '머리'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에서 2017년 출간된 SF·호러 소설집 '저주토크'로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2023년 전미도서상 번역문학 부문 최종후보에 각각 올랐으며 독일 라이프치히 도서전상을 받았다.

필립 K. 디 상은 20세기 SF 문학을 대표하는 미국 작가 필립 K. 디(1928~1982)를 기념하기 위해 1983년부터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윌리엄 워슨의 '뉴로맨서', 칼리 윌리스의 '데드 스페이스', 앤 차녹의 '계산된 삶' 등이 이 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출산 후 '경영 애로' 여성 기업인 지원

광주여성가족재단, 대체인력·인건비 등...다음달까지 선착순 접수

출산,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소상공인 육아지원패키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2월 28일까지 선착순 접수. 광주시 소재 1인 여성 자영업자 중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

력을 채용한 후 인건비를 지급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총 50명을 선발해 대체인력 1명 고용 시 월 최대 100만 원(최장 3개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소상공인 확인서, 임신확인서(출생신고 전)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는 주민등록지와 다른 별도 사업장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유증업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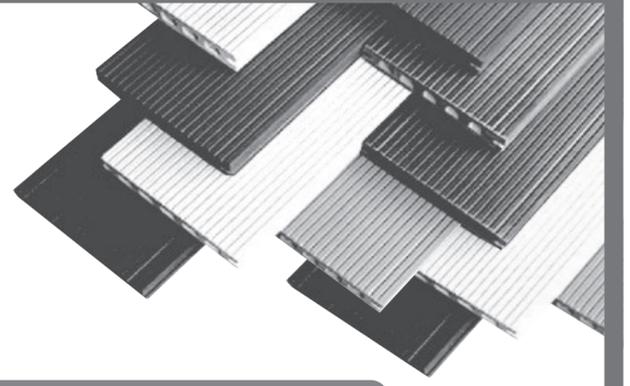
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기업체(KB금융그룹) 후원금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여성들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번 사업이 출산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해 '마음껏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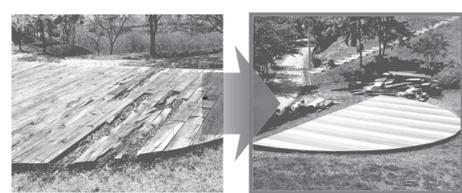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